



미 증시, 잭슨홀미팅 안도감 이어지며 상승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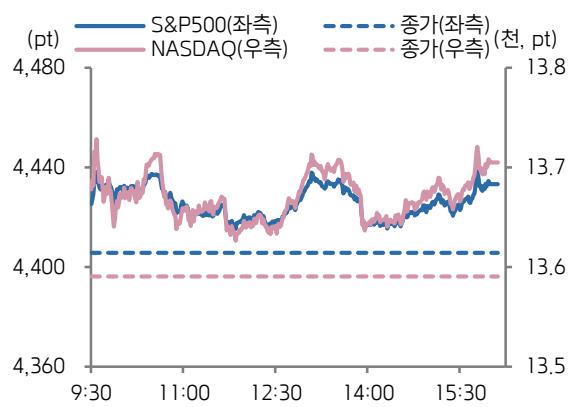
28 일(월) 미국 증시는 예상치에 부합했던 잭슨홀 미팅 이후 안도감이 이어진 가운데, 미국채 10년물 금리 4.2%대 하향 안정화, 중국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투자심리 개선되며 상승(다우 +0.62%, S&P500 +0.63%, 나스닥 +0.84%).

28 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원타고 상무 장관과 회담하며 미중 긴장 완화 기대감 형성. 양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희귀광물 등 상대국에 대한 수출 통제 등 무역·투자 문제 및 의사소통 채널 구축 방안 등을 논의. 관광, 문화 분야 협력 방안도논의할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러몬도 장관은 “미·중 간 관광이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미국에 300억달러의 경제 효과와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언급.

중국 재정부는 자본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주식거래 인지세를 현행 0.1%에서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발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단행. 일각에서는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변화에 예민한 9조 6천억달러(약 1경 2천 740조원) 규모의 중국 주식시장에서 자동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평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도 이날 별도의 성명에서 IPO 속도를 늦추고, 대주주의 지분 축소를 추가로 규제하며, 증거금을 낮출 것이라고 언급.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주식 거래 비용을 인하하고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며 장기 투자를 도입하는 내용의 증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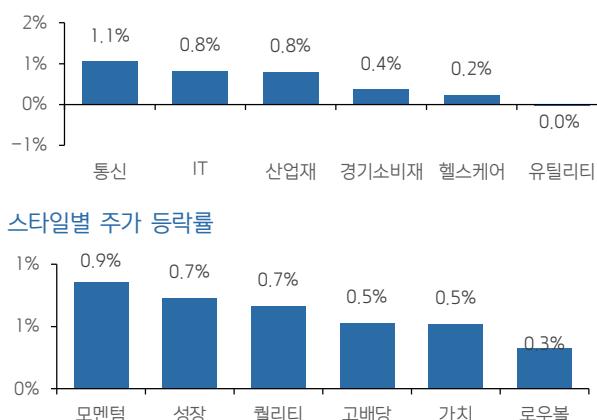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통신(+1.1%), IT(+0.8%), 산업재(+0.8%)의 상승폭이 가장 커고, 유트리티(0%), 헬스케어(+0.2%), 경기소비재(+0.4%)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애플(0.88%), 알파벳(0.87%), 메타(1.67%), 테슬라(0.1%), 엔비디아(1.78%) 등 주요 시총 상위 기술주 반등. 중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샤오펑(5.25%)은 28일 7억 4400만달러 상당의 주식 교환으로 차량호출회사인 디디의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발 사업을 인수한다고 발표. 이에 따라 디디는 샤오펑의 전략적 주주가 되며 마케팅,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충전, 로봇택시 및 해외 확장 분야에서 협력. 7월말에는 샤오펑과 폭스바겐이 폭스바겐 브랜드로 2026년에 중국시장 전용 신형 전기차 2대를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폭스바겐이 샤오펑에 7억달러를 투자한 것에 이어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43.41	+0.96%	USD/KRW	1,323.13	-0.12%
코스피 200	332.53	+0.69%	달러 지수	104.06	-0.02%
코스닥	909.38	+1.11%	EUR/USD	1.08	+0.03%
코스닥 150	1,467.53	+0.73%	USD/CNH	7.29	-0.01%
S&P500	4,433.31	+0.63%	USD/JPY	146.45	-0.06%
NASDAQ	13,705.13	+0.84%	채권시장		
다우	34,559.98	+0.62%	국고채 3년	3.760	-3bp
VIX	15.08	-3.83%	국고채 10년	3.872	-6.1bp
러셀 2000	1,869.01	+0.83%	미국 국채 2년	5.048	-3bp
필라. 반도체	3,537.87	+1.21%	미국 국채 10년	4.202	-3.3bp
다우 운송	15,717.31	+0.66%	미국 국채 30년	4.277	-0.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93.69	+1.36%	WTI	80.03	-0.09%
MSCI 전세계 지수	675.63	+0.81%	브렌트유	84.42	-0.07%
MSCI DM 지수	2,935.71	+0.81%	금	1948.1	+0.07%
MSCI EM 지수	978.09	+0.73%	은	24.28	+0.09%
MSCI 한국 ETF	62.51	+0.81%	구리	376.4	+0.2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1%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9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2.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 잭슨홀 미팅에 대한 안도감 지속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 미중 규제 완화 기대에 따른 미국 반도체주 강세가 국내 반도체주 주가에 미치는 영향
- 중기 추세선인 코스피의 120 일선 약착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작년에 증시 급락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은 시장이 예상해왔고 감당 가능한 수준에 그쳤다는 점이 증시에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 다만, 9 월 FOMC 이전 고용과 인플레 지표가 증시 친화적으로 나와야 안도감 그 이상의 투자심리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시, 이번 잭슨홀 미팅은 불확실성 완전 소멸 보다는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소시켜줬던 재료라고 볼 수 있음.

한편, 미국은 지표가 호조세를 보일수록 연준 추가 긴축의 정당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지만(Good news is bad News), 중국은 지표가 취약하게 나올수록 침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Bad news is bad news). 이런 국면을 타개하고자 중국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0.1% → 0.05%), IPO 일정 지연 및 대주주 지분매도 규제와 같이 주식 공급물량 축소를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부양책들을 시행하고 있긴 함.

그렇지만 전일 중국 증시가 장초반 5%대 급등한 이후 끝내 1%대 상승세에 그친 전강후약 장세를 연출한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시장 참여자들은 이들의 부양책 강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 또 미국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이 1) 수출통제 정보 교환을 통한 안보 정책 오해 축소(미국 상무부), 2) 양국 경제 및 무역관계 개선 노력(중국 상무부) 등을 논의하긴 했으나,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화해 모드 보다는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는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임.

이처럼 중국 경제와 증시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래도 시장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 경제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중국발 악재가 국내 증시에도 제한적인 영향 하고 있다는 점임. 가령, 8 월 17 일~23 일 동안 아시아 전반에 걸쳐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순매도(-56.7 억달러)가 발생했지만, 이중 중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전체 자금의 약 82%(-45.7 억달러)인 반면 한국에서 유출된 자금은 약 2%(-1.5 억달러)에 불과했다는 점을 참고해볼 필요. 따라서 중국 증시의 부진 현상이 현재보다 악화되거나, 내부 부동산 위기 통제 실패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급으로 격화되지 않는 이상, 국내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 베팅은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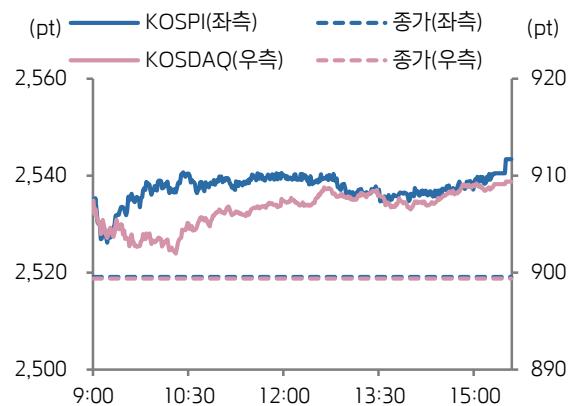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 증시 활성화 정책에 따른 중국 증시 강세 효과 등에 힘입어 2 차전지 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96%, 코스닥 1.11%).

금일에도 월 중 시장 불안을 유발했던 잭슨홀 미팅에 대한 안도감이 남아있는 가운데, 미중 양국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마이크론(+2.5%), 엔비디아(+1.8%) 등 미국 반도체주 강세 효과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코스피는 지난 8 월 16 일에 중국 부동산 위기 여파로 3 월 이후 처음으로 중기 추세선이자 심리적인 지지선인 120 일선을 하향이탈하면서 추세 훼손 우려가 발생하기도 했음. 또 주가가 지지선을 하향 이탈한 후에는 해당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변해버린다는 이론 상의 부담 요인도 상존했던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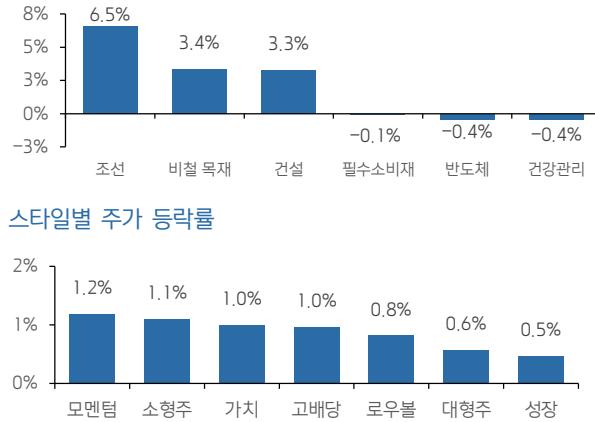
그러나 잭슨홀 미팅을 기준 우려와 달리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전일 종가(2,543pt) 기준으로 120 일선(2,538pt) 위로 9 거래일만에 빠르게 복귀했다는 점이 기술적 저항선이 고착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 모습. 이는 국내 증시의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며, 향후 120 일선 레벨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더라도 지수 하단 자체는 2,500 선内外에서 견조한 복원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